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 수 정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Han, Su Jeong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Daejeon,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study further explored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ethods:**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from 239 nursing students in D city and P city from March 1 to March 30, 2012.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ass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Results:** 1. The mean scores for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major satisfaction were 3.81, 3.67, and 3.89, respectively. 2. Academic self-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3. Major satisfact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Conclusion:** Academic self-efficacy is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career attitude maturity.

Key Words: Self-efficacy, Satisfaction, Career, Attitude, Student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성장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진로이다. 대학 시기는 장래의 직업을 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Koo & Park, 2005; Kwon et al., 2009; Lee, 2006). 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으로써, 특히 학과선택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지고, 각 대학의 입학생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해

지는 등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은 기존의 성적과 지리적 요인 이외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Jo, 2010).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의 적성과 장래희망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입학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와 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Kang, 2010-b; Koo & Park, 2005).

간호학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는 동시에 직업이 결정되는 특성이 강하고, 다른 전공에 비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의 학과에서도 학생의 인생 진로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지도하기

주요어: 자기효능감, 만족도, 진로, 태도, 학생

Corresponding author: Han, Su Jeong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28 Wonangmaeul, Seo-gu, Daejeon 302-718, Korea.
Tel: +82-42-600-6344, Fax: +82-42-600-6314, E-mail: sjhan@konyang.ac.kr

투고일: 2013년 6월 19일 / **수정일:** 2013년 7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0월 15일

보다는 병원이나 산업체 및 기관의 설명회를 열거나, 해당 기관의 간호사 채용 정보를 전달해 주는 정도의 취업지도가 대부분으로, 간호학생들에게 진로지도와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Kim et al., 2004). 이런 이유로 간호학생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하거나, 진로에 관한 연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Kim et al., 2004; Koo & Park, 2005). 그러나 최근 학문의 분화와 통합현상,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불황의 지속으로 신규 채용 인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진로결정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과거에 취업이 보장되던 전공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어 특수 전공 분야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고 결정해야 한다(Kang, 2010-a; Koo & Park, 2005).

우리가 선택한 진로에 따라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진로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Ko & Kim, 2011; Lee, 2007). 전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개인이 어떤 준비와 대처 행동을 나타내는가를 진로태도성숙이라고 한다.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진 사람은 현실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개인적인 선호와 열정,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 성취감과 일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Lee & Han, 1998).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개인이 특정 진로 영역에 대한 결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중재변인에 기초를 하게 되는데,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일차적인 중재변인으로서 진로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andura, 1986).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서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의 행동수정 과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과제 수행여부, 노력의 지속성, 개인의 성취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진로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Bandura, 1986; Kim & Kim, 2012). McLaughlin, Moutray와 Muldoon (2007)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수행과 성과 측면에 적용되어 연구되었지만, 간호교육현장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인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성공적이며 긍정적일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외의 다른 측면의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hang, 2005; Ko & Kim, 2011).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을 갖기 때문에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Lee, 2012). 이렇듯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상황 뿐만 아니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수행하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고 진로태도성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Cheong, Park, & Shin, 2004; Ko & Kim, 2011).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전공 선택으로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편안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Jang, 2003).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학과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Jeong & Park, 2009). 대학 진학 시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은 진로의식의 형성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을 결정하고 직업과 관련된 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그 결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Jeong & Park, 2009; Kang, 2010-a, 2010-b; Kim, 2007). 즉, 전공에 대한 자신의 지각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를 생각함에 있어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앞으로의 진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Jeong & Park, 2009).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확인되고 있다(Jeong & Park, 2009; Kim & Kim, 2012). 학업적 효능감은 학과만족과 진로정체감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히 학업적 효능감은 학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진로정체감과 학과적용에는 학과만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ong et al., 2004; Lee, 2012).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는 진로태도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위에서 살펴본 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단편적으로 다루었을 뿐

(Kim et al., 2004; Koo & Park, 2005; Kwon et al., 2009), 이 세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 과정을 통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진로지도와 상담에서 소외되어 왔던 간호대학생의 진로교육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설정하고, 이들 변인이 진로태도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태도성숙 정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전공만족도가 미치는 매개성을 탐색하는 상관성 조사연구이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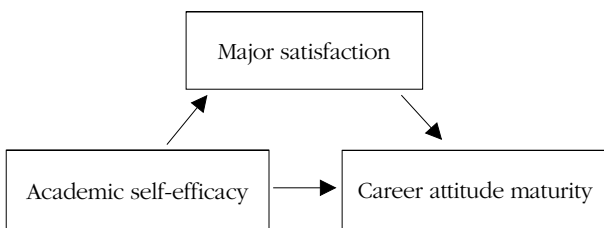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대전과 부산 지역 소재 2곳의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239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3. 연구도구

1)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Ko (201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Ko (201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과 자신감 8문항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서 6문항과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2문항을 선택하였다.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어려워도 관심 있는 일을 꼭 한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을 선택하여 총 8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o (2011)의 도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sim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Kim (200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공만족을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 보고(Ha, 2000),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총 12문항으로 ‘우리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우리학과의 교과내용은 흥미롭다’, ‘우리학과는 다닐만한 학과이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점수가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였다.

3)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은 Han과 Lee (1997)의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바탕으로 Jeong과 Park (2009)이 대학생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6문항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비록 내 직업에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 한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인이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단계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진로계획, 결정 및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개인이 도달한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다.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부정문항은 역산을 실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Jeong과 Park (200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4$ 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3월 한 달간이었다. 설문지는 본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배부하였으며, 총 250명에게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240부로 96%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입이 불완전하여 자료처리가 곤란한 1부를 제외한 239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를 2개로 하였을 때 107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 239명은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소속 기관에 기관윤리위원회가 없어 심의를 받지 못하였으나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타 지역 대상자에게는 연구대상자의 학년 지도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 후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음과 비밀 보장이 됨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질 것과 연구대상자는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을 등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태도성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서 전공만족도가 미치는 매개효과는 단순회귀와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여자(206명, 86.2%)가 더 많았고 연령은 평균 18.5세로 최저 18세에서 최고 26세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52.3%(125명)이었으며, 있는 경우는 기독교가 24.7%(59명)로 가장 많았다. 전공 선택 동기를 살펴보면, 취업률이 높아서 선택한 경우가 43.9%(105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이 적성이 맞아서 선택한 경우가 38.1%(91명)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9)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or M±SD |
|----------------------------------|-----------------------|---------------|
| Age (year) | | 18.5±0.95 |
| Gender | Male | 33 (13.8) |
| | Female | 206 (86.2) |
| Religion | Christian | 59 (24.7) |
| | Catholic | 24 (10.0) |
| | Buddhism | 31 (13.0) |
| | None | 125 (52.3) |
| Reason of choosing nursing major | Academic performance | 43 (18.0) |
| | Interests in nursing | 91 (38.1) |
| | Easiness to get a job | 105 (43.9) |

2.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태도 성숙 정도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0.48 ± 4.28 점, 전공만족도는 46.70 ± 6.16 점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태도성숙 정도는 95.51 ± 9.98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 정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태도성숙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은 양의 상관관계($r = .59, p < .001$)가 있었고,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r = .50,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도도 양의 상관관계($r = .51, p < .001$)를 보여 세 변수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Table 2. Score for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N=239)

| Variables | Min | Max | M±SD |
|--------------------------|-----|-----|------------|
| Academic self-efficacy | 18 | 40 | 30.48±4.28 |
| Major satisfaction | 31 | 60 | 46.70±6.16 |
| Career attitude maturity | 72 | 122 | 95.51±9.98 |

Table 3. Correlation among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N=239)

| Variables | Academic self-efficacy | | Major satisfaction | | Career attitude maturity | |
|--------------------------|------------------------|--|--------------------|--|--------------------------|--|
| | r (p) | | r (p) | | r (p) | |
| Academic self-efficacy | 1.00 | | | | | |
| Major satisfaction | .50 (< .001) | | 1.00 | | | |
| Career attitude maturity | .59 (< .001) | | .51 (< .001) | | 1.00 | |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 Variables | Major satisfaction | | Career attitude maturity | | Career attitude maturity | |
|------------------------|--------------------------------------|---------------|---------------------------------------|----------------|--------------------------------------|---------------|
| | Model 1 | | Model 2 | | Model 3 | |
| | β | t (p) | β | t (p) | β | t (p) |
| Academic self-efficacy | .57 | 8.34 (< .001) | .59 | 11.23 (< .001) | .44 | 5.04 (< .001) |
| Major satisfaction | - | - | | | .29 | 7.61 (< .001) |
| | R ² =.25, F=81.91, p<.001 | | R ² =.34, F=126.30, p<.001 | | R ² =.41, F=82.36, p<.001 | |

4.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3가지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첫 단계로 매개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해 다중 회귀분석 한다.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되, 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의 회귀분석에서보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 더 커야 한다. 그리고 3단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지 못하면 완전매개이고, 유의하면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Bennett, 2000).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전에 실시한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 범위가 0.743~0.998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002~1.346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3단계의 회귀분석에 따라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Table 4), 1단계인 독립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

귀계수 β 값이 .57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델로 유의하였다($F=81.91,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 .59 ($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델도 유의하였다($F=126.30, p < .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 전공만족도는 β 값 .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β 값(.44)이 2단계의 β 값(.59)의 크기보다 작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부분매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단계의 모델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2.38, p < .001$).

Table 4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은 높아지는 것($\beta=.59, p < .001$)으로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매개변수 전공만족도를 고려하였을 때 그 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beta=.44, p < .001$)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부분 매개효과($\beta=.29, p < .001$)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간호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증가하였고, 증가된 전공만족도는 진로태도성숙을 증가시켰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태도성숙의 정도와 그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3.81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404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Chang (2005)의 2.58점(4점 만점), 2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Choi (2010)의 3.15점(5점 만점), 36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2012)의 3.10점(5점 만점)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좀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McLaughlin 등 (2007)의 384명의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졸업 시 까지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6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와 유사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중등도 이상을 보여 학생들은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5점 만점에 3.89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생의 학과만족을 연구한 Cheong 등(2004)의 연구에서는 3.28점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생 365명의 학과선택만족을 연구한 Lee (2012)의 연구에서는 3.3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중등도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는 5점 만점에 3.67점으로 나타나 중등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을 연구한 Kwon 등(2009)의 3.6점과 Kim 등(2004)의 3.58점과 유사하였다. Koo와 Park (2005)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가 3.44점으로 나타났고, 일반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한 Lee와 Lee (2000)의 연구에서는 3.49점으로, 공학계열 대학생 435명을 대상으로 한 Kang (2010-b)의 연구에서는 3.3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태도성숙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태도성숙의 형성이 증진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생이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학업적 능력을 지각하고 적극적으로 전공에 임하는 자신의 모습을 높게 지각하면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연구들과(Cheong et al., 2004; Jeong & Park, 2009; Kang, 2010-a, 2010-b; Kim & Kim, 2012; Lee, 2012)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Ko와 Kim (2011)와 Jeong과 Park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성숙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고(Lee & Choi, 2010), 자기효능감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Lee & Chun, 2006)는 연구결과와 부합된다. 전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한 Cheong 등(2004)의 연구결과와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Ko와 Kim

(2011)의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 Kang (2010-a)은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은 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 확신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을 중재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효능감 변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와 Kim (2011)은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설명력은 8.8%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또한 장애 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Lee와 Choi (2010)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2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진로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보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대학생의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Cheong 등(2004)의 연구에서 학업적 효능감이 학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학과만족을 매개로 하여 진로정체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Cha와 Lee (2012)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과 진로목표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과만족에 21%의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목표 안정성에는 1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그러나 McLaughlin 등 (2007)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세분화하여 간호학생들의 학업성적과 졸업 시까지의 프로그램 완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즉,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강하게 동기부여 되며 성공에 몰입하여 학교의 요구 사항들을 맞추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외에도 직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추후 연구를 통해 간호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이들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과 진

로태도성숙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키는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학과만족을 통해 진로태도성숙 형성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을 증진시켜 진로상담과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학습자로서의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성공적이며 긍정적일 수 있도록 교수법을 개선하고, 성공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이를 통해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진로태도성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관계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방소재 대학의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시도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을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변수의 계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nnett, J. A. (2000).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in nursing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differenc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3*, 415-420.
- Cha, M. H., & Lee, J. A. (2012). The relationships of perceived fi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4), 227-243.
- Chang, K. M. (2005).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6*(1), 185-196.
- Cheong, M. H., Park, S. M., & Shin, G. S. (2004). The path analysis

- of variables effecting major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5(1), 95-111.
- Ha, H. S.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an, J. C., & Lee, K. H. (1997). Validation on instrumen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8, 219-255.
- Jang, S. C. (2003).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analysis of related personal and cognitive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Jeong, H. Y., & Park, O. L. (2009).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ense of value,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level of beauty care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Beauty and Art*, 10(1), 35-49.
- Jo, S. J. (2010). A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s' department choice based on consumers' centered educatio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3(3), 111-151.
- Kang, S. H. (2010-a). Relationships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2(2), 151-164.
- Kang, S. H. (2010-b).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to the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3), 291-307.
- Kim H. J. (2007).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Kim, M. A., Lim, J. Y., Kim, S. Y., Kim, E. J., Lee, J. E., & Ko, Y. K. (2004).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4), 383-391.
- Kim, W. K., & Kim, E. J.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sports related major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7(2), 65-77.
- Ko, B. S. (2011).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Ko, B. S., & Kim, Y. H. (2011).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4(2), 29-42.
- Koo, H. Y., Park, H. S. (2005).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6(2), 373-385.
- Kwon, H. J., Kim, B. R., Kim, S. Y., Kim, S. J., Sung, J. A., Shin, Y. M., et al. (2009). A study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the colle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wha Nursing*, 43, 41-50.
- Lee, E. A. (2007). Adolescence's course view determinants and changes through the grade. *Journal of Korean Society*, 8(1), 121-162.
- Lee, J. A. (2012). Medi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s in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to major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5), 2329-2344.
- Lee, J. A., & Choi, W. Y. (2010). Comparison between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academic self-efficacy, social supports, and career aspirations. *Disability & Employment*, 20(2), 55-76.
- Lee, K. H., & Han, J.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1), 167-189.
- Lee, K. H., & Lee, H. J.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 Lee, S. 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al variable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2), 399-417.
- Lee, S. H., & Chun, T. J. (2006). 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perceived athletic competence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thle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19(1), 171-184.
- McLaughlin, K., Moutray, M., & Muldoon, O. T. (2007). The role of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in the selection and retention of successful 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1(2), 211-221. <http://doi.org/10.1111/j.1365-2648.2007.04492.x>